

감사원의 감사권 오남용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06
----------	-------

발의연월일 : 2025. 7. 29.

발 의 자 : 김선민 · 서왕진 · 황운하
백선희 · 정춘생 · 한창민
최혁진 · 신장식 · 차규근
박은정 · 김재원 · 김준형
이해민 · 윤종오 · 전종덕
의원(15인)

주 문

‘감사원의 감사권 오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한다.

1.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에 있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개입 등에 의한 독립성 논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감사착수·중간결과 발표 등 심각한 절차위반을 수반한 감사권 오남용 의혹 사건
2.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복무관리실태 감사 관련하여 표적감사

에 해당할 뿐 아니라 감사보고서 공개·시행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패싱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감사권 오남용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3.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에 있어 감사범위를 경제성 평가로만 축소하는 등 결론을 정해놓은 짜맞추기 감사,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무죄를 받을 정도로 무리하게 적법절차를 위반한 감사권 오남용 의혹 사건

4.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에 있어 무자격업체 하도급 수주 등 다수의 위법사태가 발견되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대상 및 자료 등을 축소하고 김건희 관련 업체에 대한 감사 회피 등 부실감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 사건

5. 국가통계(부동산·고용·소득통계) 조작사건 관련하여 부동산원 직원들을 회유·협박하여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는 등 위법한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과정에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짜맞추는 방식으로 감사하는 등 감사권을 오남용하였다는 의혹 사건

6.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감사), 한국방송공사(KBS) 위법·부당행위 국민감사,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MBC·방문진 이사진 감사) 등 대언론기관 감사에 있어 표적감사 및 무리한 위법감사 의혹 사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건 등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제안이유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의 직무 수행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감사해야 할 책임을 가진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위 사건들에서 감사권을 본래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남용하거나, 과도하게 행사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팽겨둔 채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과 사명에 반하여 검찰독재의 선봉에 서는 역할을 자임하였다.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책감사에 무리하게 나서거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 결론을 정해놓은 짜맞

추기 감사를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감사 직원들을 회유·협박하여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는 등 위법한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이나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를 패싱하는 등 적법절차를 어기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권 오남용은 헌법상 보장된 권력분립과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크다.